

불자 세상보기

호스피스, 불교 복지 증진 매개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호스피스 서비스는 의료와 간병, 복지, 그리고 종교 등이 어우러진 종합적 서비스 개념으로 최근 완화의료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호스피스 환자, 시설, 간병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는 완치를 위한 치료활동이나 연명을 위한 약물 공급이 일체 중단되고 다만 생존하는 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적용된다. 또한 본인이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가 고통과 불안이 없이 조용히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호스피스 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인도의 종교계에서 행려병자를 돌보는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이다.

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종간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호스피스 서비스의 사회적 확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부처님은 "병자를 돌보아 주는 이는 곧 나를 돌보는 것이요, 병자를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호하는 것이다."라고 설하신 바 있다.

전통적으로 사찰에는 호스피스와 유사한 열반당이 운영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시설은 주로 스님들이 이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시설을 비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병공덕이 크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금은 누구나 호스피스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호스피스 간병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주요 사찰에서도 요양시설과 함께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필요가 있다.

발언대

노동운동가 조계사 피신 논란

지난 11월 15일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동당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 불교계 안팎에 '보호나 되거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화의 장 제공은 종교의 참 모습"



한상균 민주노동당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찬반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조계사가 한 위원장을 품은 것은 종교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조계사가 치외법권이냐" 혹은 "조계종이 정치에 휘말리느냐" 등 지적이 일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사법적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종교는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은 종교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람들의 왜곡된 시

선이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어느 입장을 지지하거나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불어 불교계의 이런 역할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교계는 이번 사태가 서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계사가 극렬투쟁의 성지인가?"



오늘 날 한국의 2천만 불교도들은 서울 조계사가 불법폭력시위대들과 종교보좌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 세력들의 은신처가 되거나, 그들 혁명운동의 거점이 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한다.

원효 스님의 '화쟁'은 법(dharma)상의 문제다. 홍(紅)과 청(靑)처럼 이념과 색깔이 확연히 다른 것을 화해시켜 화색을 만들려는 것이 '화쟁'은 아니다. SNS에 한창 떠돌고 있는 이의주 작가의 "대체 중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신도들의 시주로 쳐묵고 노는 중들 지놈들이 대체 뭐 간디 국법을 위반한, 영장이 발부된 현행범을 보호해 주다니. 이걸 바로 범인 은의죄 아닌가(이하략)"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말이지만 '범인'을 붙잡고 있는 스님들 보는 눈이 이렇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 소개한 것이다.

불끈 쥐며 이 대한민국을 한방이면 날릴 수 있다는 듯이 '민중들의 거리투쟁'을 외치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일인가. 노동자 농민 총궐기를 통해 체제를 뒤엎자는 불순세력이나, 동청 사찰이 자비문중이라 하더라도 다 받아드리면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민' '시민'은 있어도 '민중'은 없다.

社說

동국대 구성원, 이제는 제자리로

극한까지 치달았던 동국대 사태가 제단 이사들의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로 매듭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현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전원 사퇴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유심> 중간을 아쉬워하며

편집국으로 보내 온 <유심>을 꺼내 보았다. 편집 후기 앞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최근 잡지를 후원하던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유심>은 1918년 9월 1일 만해 스님이 주도해 창간된 잡지로 당해 12월까지 총 3권이 발간됐다. 이후 2001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계간지로 복간하며 내노라하는 저명한 작가들의 글이 실렸고, 2009년에는 격월간지로 전환했다.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사 전원 사퇴로 인해 법인 이사회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의해 점차적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퇴키로 했다.

<유심> 중간을 아쉬워하며

<유심>을 이끌어 온 홍사성 주간에 따르면 재정과 여러 이유가 원인이지만 편집발행을 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시(詩)'의 한자를 풀어보면 '말(言)의 사원(詩)'이다. 시는 불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실제 선사들의 선문답은 응축된 시어와 같다. 발행단체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유심>의 중간을 제고했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松根油
수령이 오래된 간벌한 소나무의 뿌리에서 전통방식으로 기름을 채취 하였습니다.
질은 술향기와 함께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피톤치드 대량방출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명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